

영생 시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인류 수명 계속 늘어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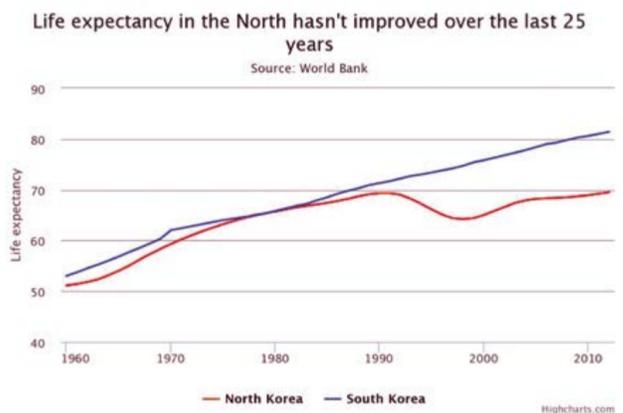
“115살 vs 150살” 인간 수명 한계 뜨거운 논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한겨레 신문(2017.6.29)에 실렸다. 기사의 골자는 인간의 수명에 한계가 있느냐 여부였다. 그 기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전학자: 인간의 수명 한계 없다

안 페이흐 등 미국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대 연구팀은 115살 수명설을 주장하는데, 연구자들이 미국·일본·프랑스·영국의 110살 이상 생존자들을 별도로 심층 분석해 보니 115살을 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유전학자들은 115살 수명한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는데, 덴마크 코펜하겐대의 마르텐 로징 교수는 사람의 절대적 수명 한계를 정한 ‘생체 시계’ 같은 것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캐나다 맥길대의 지그프리드 헤키미 교수는 인간 수명의 한계는 계속 확장될 것이며 2300년이 될 때까지 가장 길게는 150살까지 사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 한겨레 기사 요약

서기 1900년 이전만 해도 인간의 수명은 불과 삼십세 정도에 불과했다. 그런데 과학기술과 의학의 발달에 힘입어 100년 만에 인류의 수명이 칠팔십 세에 이르는 놀라운 궤가 일어났다. 가히 장수혁명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오늘날 첨단기업들이 장수프로젝



한국인과 북한인의 수명을 나타낸 그래프. 한국인들의 평균수명 증가속도가 세계 최고라고 한다.

트를 이익 창출을 위한 과제로 내놓고 있다. 구글이 칼리코라는 기업을 세워 500세 시대를 열겠다고 포문을 열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 다음은 조선일보에서 가져온 기사다.

실리콘 벨리에서는 노화 방지와 수명 연장을 내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붐이 일고 있다. 구글이 설립한 바이오 기업 칼리코는 세계 7위 제약사 애브비와 15억달러(약 1조7000억원)를 노화 연구에 투자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북미 최대의 위성라디오 기업인 시리우스 위성 라디오의 창업자인 마틴 로스블랫은 자신이 설립한 바이오기업 유니아이티드 세라퓨틱스를 통해 환자의 DNA로 이식용 장기를 합성하고, 뇌 정보를 컴퓨터에 옮겨 수명의 한계

를 없애는 연구를 하고 있다.

오러클의 공동창업자인 래리 엘리슨은 자신의 이름을 딴 의학재단을 세워 3000억원 이상을 노화 연구에 투자했다.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와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Zuckerber그는 노화세 포를 없애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유니티 바이오테크놀로지에 1300억원을 투자했다. 이 회사는 곧 광결정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들어갈 계획이다. (출처: 조선비즈 2017. 5.9)

이렇게 기업들이 장수사업에 뛰어 드는 것은 과학적으로 가능하기 때문 일 것이다.

성경: 천 살 가까이 산 인류

성경에 의하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해와 이후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인류는 장수를 했다. 심지어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 노아도 950세를 살았으며, 969세까지 산 무드셀라도 있다. 그런데 홍수 이후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감소되었고, 앞에서 말했듯이 20세기에 이르러 다시 상승하여 평균수명이 칠팔십 세에 이르게 되었으며, 최장수 노인들은 110세를 넘기도 한다.

천 살 넘어 살 수 있다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앞으로 영생의 시대가 오는데 영생교 승리재단 식구들은 천 살을 넘게 살게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다. 사람이 천 살을 넘기면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천 살을 못 넘겼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들도 다 죽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노아 홍수 이전과 환경조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서 천 살을 살 수 없다. 바로 구세주께서 가지고 계시는 감로를 양식으로 먹어야 살 수 있으며, 감로를 먹음으로써 모든 소화기관이 회복되어 영생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다.

죽음은 자신이 죽는다는 생각을 수용할 때 오는 것이다.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하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구세주가 가르쳐 주신 교义的 비결이다. 우리 모두 영생의 고지를 향하여 더욱 열심히 달려보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37>
“마귀의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을 능가했다”

나라고 하는 의식이 육천 년간 하나님을 괴롭히고 짓이기고 고통을 가했던 주체 영 마귀인 것이다. 마귀는 육천 년간이나 성장한 영이기 때문에 그 지능지수가 하나님을 능가할 정도로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마귀를 죽이려면 마귀를 죽일 수 있는 이긴자가 먼저 나와야 한다. 원수 마귀는 매우 간교하여 뱀과 같이 움직이는데 그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

을 능가할 정도였으므로 먼저 마귀의 정체를 실력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그 마귀를 죽이기까지는 거쳐 된 것이 아니다. 인간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얕은 수준의 지혜와 총명으로 된 것도 결코 아닙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가운데 그 마귀의 세력을 꺾어 죽이는 지혜와 능력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한반도 핵카오스, 인류의 원형(原型) 인내천의 역습 통일 Korea, 중천(中天)개벽 [인간완성] 새천년의 시작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 월드컵 통산 우승 4회, 준우승 4회, 4강 5회, 4년 전 브라질 월드컵 우승국. 너무나 견고해 ‘전차군단’이라 불리는 독일을 월드컵 역사에서 최초로 꺾은 아시아 국가 한국. 김영권의 원발과 손흥민의 역습이 일으킨 카오스[대혼란]가 독일에게 80년 만의 조별리그 탈락을 안기며 한순간 독일국민들의 가슴에 절망과 비판을 심었다.

인류역사에는 감히 예측하거나 단정할 수 없는 무수한 역습(逆襲)의 카오스가 일어났다. 아주 작은 초기 조건

의 변
화로 인해 카오스 이론과 나비효과에서 보듯 인간사 불가지론 카오스를 잠재울 신의 한수는 전지전능자 출현 하는 현상
인내천과 홍익인간으로 전 인류 신성회복 된다

이라는 새로움이 함께한다면 과연 지구촌에 영구적 평화의 봄이 올까?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답을 알고 나면 것처럼 쉬운 일이 없다. 하여, 「불가지론」이라는 무지몽매(無知蒙昧)의 심상(心象)이 가장 간절하게 고대하는 「신(神)의 한수」는 「전지전능(全知全能)」이다.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예측 가능한 단순화에 성공하면 어떠한 카오스[혼란]도 간단히 잠재울 수 있다.

영구적 평화의 봄은 반드시 온다. 왜 그리고 어떻게? 천하무적의 전지전능함을 소유한 「구세주 메시아」가 출현했으며, 이는 인간의 엄청난 결과
과 한(恨)을
간직한 인내천의 비밀을

는 것이 카오스 이론(chaos theory),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다. 서울의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하여 동경에 폭풍을 휘몰아치게 할 수 있다는 건, 카오스 이론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들은 인간사와 자연계의 결정론적 운동이 아닌 복잡성, 비예측성, 불규칙성, 비주기성 때문에 생긴다. 인간들은 이러한 한계와 불안에 극복하기 위해 학문과 종교를 만들어 이념과 교리를 신봉하며 꿈을 이루기 위한 연구와 기도에 몰입하지만 그 최종결과와는 여전히 ‘알 수 없다’불가치론이다.

6천 년을 변함없이 지켜온 불가지론(不可知論) 하나,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야기된 한반도발 카오스의 중심에 서 있는 남북한과 미국, 일본·중국·러시아 등 이해당사국 지도자들이 처한 현재의 복잡한 심정에 대한 여론의 짐작이 그러하다.

분쟁과 갈등의 어색함을 지나, 북핵문제의 두려움을 넘어, 남북통일

발혀 인류의 죽음까지도 해결하는 자유율법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인간사회에서 조직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 또한 「카오스 이론」과 유사한 패턴이다. 어느 한 사람의 긍정적인 행동이 집합체에 미동(微動)을 야기하고, 미동이 누적되면 카오스가 발생하고, 그 혼란의 진동 끝에 자기조직화를 창발해 조직은 새로운 집단의식과 생명력을 갖게 된다.

전지전능과 공존동생의 신화인 「인내천·홍익인간」의 유전자를 가진 혈족들의 삶터가 한반도다. 구세주가 밝힌 신화(神話)의 본질은 「나」라는 주체(의식)가 마귀인 사람에게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거듭나신 인합일(神人合一)로 혁신(革新)되는 역성혁명(易姓革命)이다. 선천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되므로, 후천 죽음과 분쟁의 원인이 밝혀지게 되고, 중천 인간의 신성을 회복하는 천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인내천·홍익인간」의 역습이 현재 한반도 핵카오스의 핵심이다.*

태풍 브라비룬 완벽히 밀어제치며 장맛비까지 멈추게 한 조희성 구세주



좌측 사진은 6월 30일 JTBC 저녁 8시 뉴스에 보도된 내용이다. 브라비룬이 한반도를 강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JTBC는 전날 태풍과 장마가 만나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예보했다. “장마가 한창인데, 태풍

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 부근에 상륙해서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데 태풍이 장마전선과 만나게 문제입니다. 많은 비와 함께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러나 우측 사진에서 보듯이 브라

비룬은 방향을 완전히 틀어 대한해협을 통과하여 나가고 있다.

조희성 구세주는 태풍이 한국에 못들어오게 하고, 장마를 지지 않게 하겠다고 공약하였는데 말씀대로 1981년 이후 그 공약이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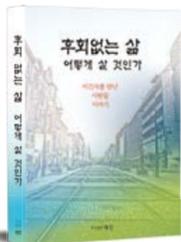
다. 더욱이 조희성 구세주는 이제 장마전선을 이용하여 태풍까지도 밀어내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내셨다.

조희성 구세주는 태풍이나 장맛비는 마귀가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씀해 왔다. 따라서 구세주는 마귀를 죽이는 존재이므로 태풍과 장맛비를 막을 수 없다면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전 국민들은 구세주께서 한국인으로 출현한 사실을 널리 알려져 많은 분들이 영생대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새책이 나왔습니다

도서출판 해인

‘삶’이라는 苦海(고해) 쉽게 건너가는 이야기 이긴자를 만난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다



과 알라딘에서 판매 중
당신의 삶이 바뀔 거예요!!



독후감을 모집합니다

이 책을 읽고 느낀 소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사례를 드립니다. 분량이 적거나 많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세주 하나님을 위한 일은 어떤 것이라도 그 의미가 상당히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3지역, 5지역에 박빙 1등

개인 1등 안명숙 승사



정은경 3지역 지회장이 상을 받고 있다

본부재단 6월 활동 성적을 발표한 결과 3지역이 지역 1등을 차지했다. 5

지역은 3지역과 약간의 차로 지역 2등, 4지역은 지역 3등을 각각 차지했다. 구역 및 개인 성적은 다음과 같다.

- 구역 1등: 21구역(구역장: 안명숙)
2등: 42구역(구역장: 고선희)
3등: 50구역(구역장: 김두식)
- 개인 1등: 안명숙 승사
2등: 이영애 권사
3등: 고선희 권사*